'統一의 전진기지 · 쾌적한 전원도시'

양주시 제4대 유정인 부시장 就任사에 밝혀

양주시는 1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임충빈 양주시장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 및 읍.면.동장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유정인 부시장 취임식을 가졌다.

제4대 유정인(41 · **사진**)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양주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풍부하고 천혜의 수려한 경관과 전통문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이룬다면 양주가 통일의 전진기지로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살기 좋은 쾌적한 전원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유 부시장은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지난 90년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도 투자심사계장, 물가지도계장, 내무부, 경찰대학, 내무부 방재계획과를 거쳐 98년 서기관으로 승진 경기도 정책기획관 의왕시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지난해 12월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했다.

특히 유 부시장은 행자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을 비롯 도 정책기획관 시설에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업무추진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꿈과 희망의 도시로 발전'

동두천시 이종인 부시장 취임식

동두천시는 신임 이종인 부시장의 취임식을 1월22일 오후 5시에 개최됐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종인 부시장은"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시장님이 공석인 중책의 부시장을 맡게 되어 새로운 각오로 시장권한대행으로서의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미흡하나마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통일거점 도시이자 수도권 제일의 도시로써 활기 넘치는 꿈과 희망의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웅비의 나래를 펴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38여년의 공직생활 경험과 접경지역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임 이병기 시장권한대행이 밝힌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감은 물론, 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8만5천여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인 부시장은 1968년 공무원으로 첫 부임해 38년간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경기도 공보관실을 비롯해 여러 부서에서 일해 오다 안산시 상록구청장을 거쳐 동두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양주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업에 필요한 자금

양주시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해, 재난 기타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7년도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면·성실하고 의욕이 있는 자로서 생활안정을 위한 영세 상업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조금 일부,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등의 해당된다.

융자조건으로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이자는 년3%이며 일반융자는 가구당 1천만원 이내, 학자금은 년 5백만원 한도로 40가구 4억원을 융자 할 계획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 또는 세대에서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양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031-820-2780~2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고품격 치안서비스 제공

이한명 연천경찰서장 초도순시

이한명 연천경찰서장(**사진**)은 1월 25일 연천파출소를 시작으로 신서파출소, 전곡지구대를 순시하며 각 지구대·파출소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를 보고 받는 등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역경찰 만들기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한명 서장은 ▶민생치안 확보▶주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천경찰▶주민에 대한 헌신적 봉사로 신뢰받는 연천경찰▶안전하고 질서있는 지역사회 건설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천경찰서 제50대 서장으로 취임한 이한명 총경은 경찰간부후보 26기로 부산청 북부서장, 부산청 보안과장, 서울청 남부서장, 서울청 정보통신과장을 역임했으며 경남 산청출신이며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육군 65사단 병사들 외박 중 老人 구해

외박 중인 병사들이 군인정신을 발휘, 한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육군 65사단 까치부대 박민수 상병·박근환 일병·이준학 일병은 외박 중이던 지난 1월6일의정부역 지하도에서 한 노인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가운데 병사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노인에게 신속히 달려가 체온저하를 막기 위해 상의를 벗어 환자의 몸을 감싼 후, 부대에서 배운 구급법을 활용하여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안정시키는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119 구조대에 신고했다.

119 대원의 응급조치로 노인은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구조대원은 "만일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병사들 덕분에 무사하게 끝낼 수 있었다"고 말하며 병사들의 조치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주위의 칭찬에 대해 병사들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이라며 "단지 할아버지가 무사한 것이 기쁠 뿐이다."라고 겸손해 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양주'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의제선포식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는 1월 23일 시청대회의실에서 임충빈 양주시장, 정성호국회의원, 원대식 양주시의회의장, 허순자 운영위원장,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제선포식을 가졌다.

양주의제21 추진협의회 의제선포식은 2005년5월30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2006년12월26일 위원회를 구성 1년 동안「양주의제 작성위원회」에서 여러 분야에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 분과별로 양주시의 특성에 맞게 지금까지 연구하고 의견을 모아 작성된 5개 분야 23건에 대한 실천항목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천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의제 선포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양주의제 실천항목은 ▶생활환경분야 깨끗한 도시환경 양주만들기 등 4건▶사회복지분야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양주 만들기 등 5건▶생태환경분야 살아 숨쉬는 자연형 하천 만들기 등 5건▶문화예술분야 문화유산 가꾸고 사랑하는 모임 만들기 등 4건▶산업경제분야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양주 만들기 등 5건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K-water, "동두천수도서비스센터" 開所

고품질 선진 수돗물 서비스 제공 본격화

한국수자원공사 동두천수도서비스센터 개소식이 1월24일 11시 동두천시 하봉암동 새 사옥에서, 정성호 국회의원, 동두천시 이종인 부시장, 형남선 시의회 의장,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와 K-water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공사와 동두천시는 지난해 6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을 처음 체결한 이래, 시설물 인수·인계 등을 위한 약 3개월 동안의 합동근무를 거쳐, 새해부터는 동두천시 지방상수도의 운영·관리 전반을 수자원공사에서 맡고 있다. 공사는 향후 30년 동안, 총 1천812억원을 투입하여 동두천 지방상수도의 시설을 현대화·자동화하고,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며(2013년까지 80% 이상), 수질을 개선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등 8만 5천 여 동두천시민에 대한 고품질의 선진 수돗물 서비스 제공을 본격화하게 된다.

서비스센터 이남연 소장은 "본사업은 기존 상수도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 급수시설 건설, 고객관리, 요금징수 등 상수도업무 대부분을 우리공사가 직접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양여계약 방식 위수탁사업인 만큼, 동두천시와 동두천시민 모두가 만족해하고 또 신뢰하는 고품질 수돗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센터 직원 모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일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市長 · 國會議員 지역 현안해결 한마음

양주시, 건설교통부장관 만나 현안문제 해결 도움요청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양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임충빈 양주시장이 1월19일 양주시 주요현안 사업의 중앙부처 지원 협의를 위해 과천 건설교통부 장관실에서 정성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성호 국회의원과 임충빈 양주시장, 박재일 양주시의회의원, 이해주 도시건설국장 등 양주시 관계자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과 관계국장들이 배석하여 양주시의 현안에 대한 논의로 이뤄졌다.

양주시는 주요 현안사항으로 ▶양주시 행정타운 조성▶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 ▶국지도 39호선 송추~광적구간 확포장▶공업지역 공급물량 반영 및 배정 건의▶서울~동두천간 민자고속도로 조기추진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며 "관계국장들과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낙후된 양주시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당을 떠나 시장과 국회의원이 힘을 모은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관내 주요 인사들과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과 임충빈 양주시장은 이후에도 후속사업으로 주택공사, 토지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소관기관장과의 지역현안간담회를 연속 기획해 양주시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전방위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문화와 관광이 조화로운 동두천시'

동두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개회

동두천시의회(의장 형남선)는 1월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07년 들어 첫 번째 개최되는 회기로서 집행부로부터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된다.

형남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동두천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시행에 발맞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경원선복선전철 개통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분위기를 살려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이 차근차근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이종인 신임 부시장은 "시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을 순조로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주는 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동두천시가 추진할 2007년 주요사업목표로 경기북부 성장발전 중심도시 건설, 교육환경개선 및 4년제 대학유치 총력,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소외나 차별 받지 않는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동두천시 건설을 위해 열린, 맞춤, 투명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홍석우 의원은 소요산권역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개발을 함으로써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동두천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역발전 조찬기도회

연천군 기독교 연합회는 1월14일 군청대회의실에서 김규배 연천군수, 유관기관단체장, 기독교연합회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연천군, 팩호박 발명특허취득

연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는 청정호박 재배용 봉투 및 이를 이용한 재배방법을 2004년8월28일 출원하여 2007년1월8일(특허 제10-066877호)을 받아 타 지역의 비닐호박 재배 및 유통관계를 선점하여 관내 호박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됐다.

이로써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명특허등록 6건, 출원 2건, 의장등록 3건, 상표등록 3건에 출원이 4건이다.

허윤회 농촌지도자 연천군연합회장은 "소장이하 전 직원이 연천농업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더욱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어려운 농촌에 활력소가 되고 있어 아낌없는 칭찬을 보낸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7년 숲가꾸기 사업대상지 신청 접수

연천군 2월28일까지

연천군은 1월11일부터 2월 28일까지 '07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연천군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여 산주의 소득자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태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07년도 사업계획 따라 사업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산주의 신청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또한 요청사항도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림축산과(☎839-2342), 읍·면사무소 산업분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